

프란츠
리스트

프레데릭
쇼팽



꽃이나 선물 등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상일 피아노독주회

SangEil SHIN Piano Recital

2023.11.4 Sat 7:30pm **매종체육비홀**

Program

F. Chopin - Ballade No.1, Op.23

F. Liszt - Harmonies poetiques et religieuses III, S. 173
"Benediction de Dieu dans la solitude"

Intermission

F. Chopin - Sonata No. 2. in B-flat minor, Op. 35
I. Grave - Doppio movimento
II. Scherzo
III. Marche funèbre: Lento
IV. Finale: Presto

F. Liszt - Variationen über das Thema von Bach, S. 180
"Weinen, Klagen, Sorgen, Zagen [...] sind der Cristen Tränenbrot"



Profile

피아니스트 신상일은 선화예술학교를 졸업 후, 서울예고 재학 중 도오하여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입학, 학사와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으며 귀국 후 국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2세 때 이미 영산아트홀에서 Mendelssohn piano concerto를 협연하며 연주활동의 첫 발을 내딛은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며 2009년 북체코필하모니와 세계 최고의 홀 드보르작홀과 스메타나홀에서 Beethoven piano concerto no.3 를 협연 했고, 러시아 마이콥 필하모니와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를 협연하여 현지 관객으로 부터 호평을 받으며 연주자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프라하에서 객원 지휘를 맡았던 마에스트로 Jacob Chi는 "어린나이임에도 작곡가의 심오한 음악세계를 완벽하게 소화는 특출함을 지닌 피아니스트"라는 찬사와 호평을 보냈다.

피아니스트 신상일은 빈 국립음대 재학당시, Karl-Heinz Kammerling, Rudolf Keherer, Martin Hughes, Leonel Morales Alonso 등 다수의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였으며 교수들의 추천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Karl-Heinz Kammerling 교수는 "피아노건반위, 음하나로 섬세함과 카리스마를 자유자재로 표현할수 있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인재"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김석, 박로사, 이옥희, 김정원, 윤철희 교수를, 빈 에서는 최고의 연주자이자 교수인 Oleg Maisenberg과 Stefan Arnold를 사사했다. 몬테레이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를로비바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르코프 필하모니, 태국 국립교향악단, 부다페스트 심포니, 구리시립청소년 교향악단,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팬아시아 필하모니아 등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을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홀에서 협연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금호 아트홀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라임 오페라 앙상블 초청 연주 등 전문 연주홀 외에도 압구정 성당, 고대 안암병원, 갤러리 예술통신 초청 독주회 등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주회를 통하여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신상일은 Schwingungen Trio, 앙상블 클라비어, 하피스트 한혜주 등과 뉴욕 카네기 홀, 베를린 베를린 필하모니커 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이태리 Armonie della Sera 음악페스티벌, 체코 Cesky Krumlov International 음악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음악가와 홀, 페스티벌에서 연주했으며 국내에서도 예술의 전당, 롯데 콘서트 홀은 물론 코엑스 별마당 가을을 듣다, 마포문화재단 Classic Music Festival 등과 지방 순회 연주 등 실내악에서도 클래식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부다페스트심포니와 피아노협주곡(Saint Sâns Piano Concerto No.2, Ravel Piano concerto in G Major) CD를 Sony Classic에서 발매했고 이는 KBS FM라디오 클래식 채널에서 이달의 새로 나온 음반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2017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국예술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가로써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KBS 드라마 봄의왈츠, 페이지터너, 너의 노래를 들려줘, 드라마스페셜 얼룩,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 등에 대역 및 자문위원 등으로 출연하며 진정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도 이바지 한 피아니스트 신상일은 현재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한세대학교 강사로 역임하며 후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Program Note

안녕하세요. 신상일입니다.

먼저 귀한 주말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을까도 했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항상 말이 길어지는 터라 이렇게 글로 인사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연주는 쇼팽과 리스트의 곡들로 꾸며 보았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면서도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은 작곡가입니다. 둘다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으며 고국을 떠나 생활하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쇼팽은 폴로네이즈, 리스트는 헝가리안 랍소디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둘의 다른 행보입니다. 쇼팽은 낭만주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제음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표제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표제음악: 음악 외적인 것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작품. 주로 문학과 미술쪽에서 영감을 받았다*

쇼팽은 39년을 살았고 리스트는 75년을 살았던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쇼팽의 음악은 여성적이고 섬세하며 우아한 부분을, 리스트는 남성적이며 큰 손을 이용한 어렵고 화려한 테크닉을 이야기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 연주를 통해 쇼팽과 리스트의 익히 알려진 부분과 다른 부분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쇼팽과 리스트의 음악 역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주 할 곡 소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두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조용한 부분이 많은 곡들이니 **휴대전화는 무음 내지는 진동 모드로** 부탁 드립니다. 다른 한가지는 연주가 끝난 후 충분히 여운을 느끼시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때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와 마지막의 마지막 까지 함께 호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팽 - 발라드 1번

“발라드”하면 보통 대중가수들이 떠오를실 텐데요. 놀랍게도 그 발라드가 이 발라드가 맞습니다! 발라드는 중세시대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한 장르였으며 노래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바뀌며 현재 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합니다. 쇼팽은 처음으로 발라드라는 장르를 피아노 곡으로 가져오는 시도를 했으며 총 네 곡의 발라드를 작곡 했습니다. 쇼팽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상상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발라드 1번에 대해 알려진 것은 당시 유명했던 폴란드 시인의 민족주의적 혁명 시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란 추측이 있습니다. 과연 쇼팽은 이 곡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걸까요?

어둡고 무겁게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거쳐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치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 시적이며 종교적인 선율 중 고독 속의 신의 축복

“시적이며 종교적인 선율”이라는 제목 아래 총 10개의 곡이 있으며 고독 속의 신의 축복은 그 중 세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택시 안에서 처음 듣게 된 곡입니다. 곡이 너무 좋아서 라디오 채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곡 이름을 알아내고 언젠가는 꼭 나도 쳐야겠다 해서 드디어 오늘 소소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는 표제음악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이 곡 역시 라마르틴의 시집 “시와 종교의 하모니”중 “고독 속의 신의 축복”이라는 시를 읽고 작곡한 동명의 곡이며 악보에 이 시의 일부분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 신이시여! 내게 넘쳐나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 신이시여! 내게 넘쳐나는 이 믿음은?

불확실하고 동요된 나에게

그리고 요동치는 바람의 의심의 물결 위에서

현자의 꿈속에서 선과 진실을,

폭풍우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고있는

나의 이마 위에서 며칠이 흘러가자마자,

나에게는 한 세기와 한 세계가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심연에 의해 그것들과 떨어져서

한 인간이 내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내용의 시이며, 곡은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흐르지만 점점 고조되며 희열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곡입니다.

저는 이 곡에서 미묘하게 바뀌는 화성이 주는 신비로움과 고독-기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 속의 잔잔함을 특히 더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한가지, 곡의 분위기가 바뀔때마다 길게 쉬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길게 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음악에서 침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때마다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20분 조금 넘게 연주 될 예정입니다. 설부른 판단은 자칫 타인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으니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쇼팽 - 소나타 2번

쇼팽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집안에서 쇼팽의 건강을 문제로 반대했으며 그로인해 쇼팽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쇼팽은 그 유명한 "장송 행진곡"을 작곡했습니다. 이후 소나타 2번을 작곡하며 장송 행진곡을 3악장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소나타 2번은 쇼팽의 음악 중 가장 비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먼저 작곡 된 장송 행진곡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곡에 슬픔, 분노, 아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쇼팽이 어떤 생각이나 의도로 작곡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추억, 기쁨 등도 엿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 쓸쓸하거나 냉소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나타를 준비하며 특히 3악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쇼팽이 너무나도 잘 하는 녹턴이나 녹턴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리움이나 슬픔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하필 장송 행진곡(Marche funèbre: 직역하면 장례식 행진곡)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슬픔이 타올라서 분노가 되고 그마저도 연소되며 단념한 것이 아닌지,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련이나 추억, 아픔, 더 나아가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슬프고 아름답게가 아닌 단호하고 비장하게 표현해 보고자 "행진곡"에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장송 행진곡은 A-B-A형식으로 A에서는 비장한 행진곡이 나오지만 B부분은 마치 아름다웠던 때를 추억하는 것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행진곡이 등장하며 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3악장이 끝납니다. 3악장은 엘가의 오케스트라 편곡이나 최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당시 군악대의 행진 편곡 영상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곡은 4악장에 대해서도 꼭 언급을 해야하는데 쇼팽은 4악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를 "왼손과 오른손이 긴 유니즌(같은 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수다스럽게 떠들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쇼팽 악보의 교과서와도 같은 파데레프스키는 "신비한 분위기, "미묘하고 음울하며 헤아릴 수 없는 고립된 슬픔의 느낌", "슬픔, 한숨, 눈물, 무덤가에 부는 바람소리" 등을 통해 4악장을 표현합니다. 저는 4악장을 처음 들었을때 이게 정말 쇼팽의 곡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쇼팽 소나타 2번은 앞서 말씀드린 많이 알려진 쇼팽의 우아하고 섬세한 곡이 아닌 다소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또 다른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 - 바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울음, 탄식, 근심, 두려움”과 “십자가 고난”

이 곡은 리스트가 바흐 미사곡의 베이스 선율을 가지고 와서 그 선율로 만든 변주곡 입니다. 리스트는 이 곡에서, 음악적으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두운(부정적) 요소들을 등장 시킵니다. 한숨 모티브, 반음계, 라멘토 선율, 증화음, 감화음 등과 잦은 템포의 변화, 극단적인 셈여림 차이 등으로 눈물, 걱정, 고통, 괴로움 등을 표현합니다. 각 변주들은 1번 변주, 2번 변주 같이 따로 나뉘져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심표로 끊어 주며 진행합니다. 변주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며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표현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처럼 다양한 변주가 있고 후회나 분노 같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감정들도 느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일 마지막 코랄(합창)이 등장하기 전까지 밝은 부분이 단 한군데도 없으며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 감정소모가 제일 큰 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것도 없지 않지만 이 곡을 마지막에 넣은 제일 큰 이유는 이 곡의 마지막 합창 부분 때문입니다. 바흐의 원곡에서 나오는 제일 마지막 합창을 이 변주곡에서도 마지막으로 옮겨 놓았는데 리스트는 가사도 악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거친 인생의 길에서 궁핍과 고난과 죽음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의 팔로 아버지처럼 온전히 붙잡아 주시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단지 따라 갈 뿐입니다

긴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있는 세상에 나온 느낌이 들게 하는 이 부분은 감동과 더불어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합니다. 연주를 들으시면서 이 순간 만큼은 힘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음악이 주는 감동에 빠져 보시면 어떨까요?

바흐가 원곡을 작곡할 당시 이 곡의 주제가 된 성경구절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0:5.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6: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신상일

피아노독주회

SangEil SHIN Piano Recital

주최 | GAON CLASSIC
ARTISTS & STAGE

티켓 | 전석 20,000원(학생50%할인) 예매 | 세종문화회관  interpark 티켓 문의 | 가온클래식 070-8811-0513 / gaonclassic.com